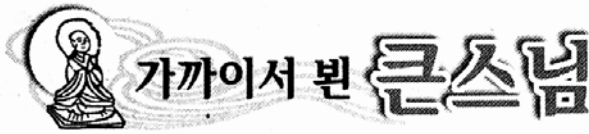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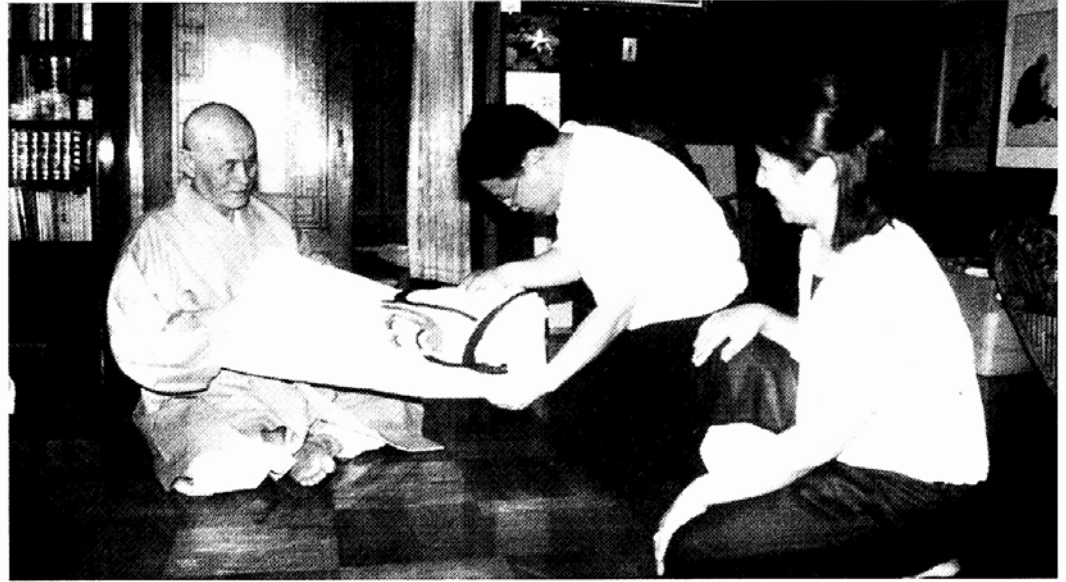
# 성공스님

부산 안양사 조실



## 가까이서 뵈는 큰스님

# “빛 값은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지난 50년간 전국 각지를 다니며 포교에 헌신해온 성공스님은 요즘도 신도들만 보면 직접 쓴 글씨와 달마도를 선물로 주며 열심히 정진할 것을 권유하신다.

文殊偈云 一念淨心是道場  
 문수계은 일념정심시도량  
 勝造河沙七寶塔 寶塔畢竟碎爲塵  
 승조하사칠보탑 보탑필경쇄위진  
 一念淨心成正覺 故知少時發念無漏  
 일념정심성정각 고지소시섭념무루  
 之因 難三災彌綸而行業  
 지인 수삼재미륵이행업  
 湛然者也 非特修心之士  
 담연자야 비특수심지사  
 成其益也 以此功德  
 성기익야 이차공덕  
 上祝聖壽萬歲 令壽千秋  
 상축성수만세 영수천추  
 天下太平 法輪常轉 三世師尊父母  
 천하태평 법륜상전 삼세사존부모  
 十方施主 普及法界生亡  
 시방시주 보급법계생망  
 同承法雨之所獲  
 동승법우지소점

不亦與法性 相終始乎  
 불역여법성 상종시호  
 庶幾樂善君子  
 셔기낙선군자  
 留神思察焉 時明元年庚戌季春  
 유신사찰연 시명창원년경술계춘  
 公山隱居牧牛子 謹誌  
 공산은거목우자 근지

분명 여긴 듯 싶는데 한편 아닌 듯 하여 다음 글목으로 들어서기를 여러번 한 끝에 도착한 안양사는 골목골에서 돌연 나타났 다. 안양사라고 벽에 써놓은 글씨가 아니 었다면 이번에도 지나칠 뻔 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알기 쉬운 안내표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부처님께서도 체득하신 깨 달음을 중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수많은 방 편들을 펼쳐 놓았듯이 말이다. 안양사를 찾듯 단 몇번의 해개인 끝에 불법의 궁극 에 도달할 안내표지를 만날 수 있다면, 또 발견한 그 안내판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꾸준히 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으리라. 걸음을 재촉해 볼 일이다. 안 내판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부지런히 가고 또 가 볼 일이다.

또 <문수계>에 한 생각의 깨끗한 마 음이 바로 도량이다. 이는 강의 모래처럼

至承安五年 庚申 自公山  
 지승안오년 경신 자공산  
 移社於江南曹溪山 以隣有定慧寺

## 한 생각 깨끗한 마음 바로 도량 수많은 칠보탑 공덕보다 수승

림 많은 칠보탑을 만드는 공덕보다 훌륭하다. 보배탑은 결국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의 깨끗한 마음은 정각(正覺)을 이룬다' 하였다.

그러므로 잠깐이라도 번뇌가 없는 깨끗한 생각을 가지는 그 인연은 비록 삼재가 휩쓸더라도 수행의 업은 흔들 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히 마음 닦는 선 티반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덕으로 위로는 성수(聖壽)만세하고, 태자는 천세하고, 천하가 태평하여 항상 법륜이 굴러가고 삼세의 스승과 부모와 시방의 사주와 불법의 산 자와 죽은 자가 한 가지 진리의 비에 젖 게 함이다.

이사가강남조계산 이인유정혜사  
 名稱 混同故 受朝旨 改定慧社  
 명칭 혼동고 수조지 개정혜사  
 爲修禪社 然勤修文 既流布故  
 위수선사 연관수문 기유포고  
 仍其舊名 影板印施耳  
 인기구명 조판인시

永脫三途之苦惱 趣入大光明藏  
 영탈삼도지고뇌 초입대광명장  
 遊觀三昧性海 窮未來際 開發蒙昧  
 유관삼매성해 궁미래계 개발몽매  
 燈燈相續 明明不盡則其爲功德  
 등등상속 명명부진즉기위공덕

승안(庚申) 5년 경신(1200년)에 이르 러 이 결사를 공산에서 강남 조계산으로 옮겼더니, 그 이웃에 정혜사(定慧寺)가 있었다. 이름이 혼동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명을 받아 정혜사(定慧社)를 수 선사로 바꾸었다. 그러나 권수문(勸修 文)이 이미 세상에 유포되었기 때문에 옛이름을 그대로 판에 새겨 인쇄하여 널리 판포한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정혜결사문>이 이번호로 끝납니다. 애독 해 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호 부터 무신스님(경주 해회선원 주지) '오도송'으로 보는 한국선맥'이 연재됩니다.

## 四柱命理와 五行術의 限界를 克服시킨 六壬來情秘法

「易術活人天啓者用」 神示出刊

★래방인에게 면접 첫 말을, 초사(初禱)란에 송곳같이 적시(指示)해 놓았습니다.  
 ★해당 국수(局數)에, 물어 오는 내용을 23가지 용건별(用件別)로 재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이 책은, 임원(任元)이 아닌 천역(天曆)으로서 주지의 효용에 중점을 두어 난해한 육임(六壬)을 바로 연구할 필요성이, 당원의 시간만 믿서 보면 순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분문, 명문으로는 판단이 안되는 각종 육임(六壬)을 요약·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천하(天下) 사람이나 부속(附屬)이나 현역(現任)에 사람이 들어서는나 전 보였거나, 어디를 가서 만났을 때, 출생(出生)일시를 묻지 않고도 그 날 그 시간만 보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 버릴 수 있게끔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준(伊俊)은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미 일어났던 일인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 언제 일어날 것인지, ●자기가 지지를 원한다면, 남에게 당한 일인지, ●그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현상이 악한지 선한지, ●내에 대해 어떤 사람이 관해나, 관해나 할 사람인지, 악한지 선한지

●첫마디를 어떻게 하면 적중할 것인지(이는 초사(初禱)에 적혀 있습니다.)

등에 대해 아주 쉽게, 쉽게(이)만 보면 알 수 있도록 해 놓아, 미리 그 결과를 직감(直感)으로써 육(肉)의 色(色)과 지(地)를 따져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日(日)을 통해서 간단하게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形(形)상(相)으로서의 「九(九) 리(里)」를 유(有)하고, 명(命)·귀(貴)의 방(方)을 알 수 있는 비법(秘法)은

- 악숙(惡熟)이 옳지, 안옳지,
- 돈이 될지 안될지, 원(元)만 언제 두루부터 될지,
- 매매(買)가 될지 안될지, 원(元)만 언제 될지,
- 위태(危)가 남아있지, 없어지지, 수(壽)해 날 아이인지,
- 혼인(婚)이 성립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 승(升) 사(事)일지, 악(惡)일지, 선(善)일지,
- 부(富)한 것이 이루어질지, 속(速)을 것인지,
- 이사가 되는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 계(計)사가 잘될 것인지,
- 찾아갈 사람이 집에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 맡은 바(任)지, 지(知)를 할 수 있는 바(任)지, 못(不)할 바(任)지
- 연(緣)새우(妻)가 언제 갈 것인지
- 친(親)가 언제 올 것인지
- 본(本)심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디에 있을지,
- 어느 방(房)으로 도망(逃)가야만 안전할 것인지,
- 여행(行)이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 승(升)부(부)에 이(이)킬지, 잃지,
- 온(溫) 사람을 재(再)우(友)할지, 재(再)우(友)하는 안(안)될 것인지,
- 성(成)가 나에게 이익(益)이 될 사람인지, 해(害)가 될 사람인지,
- 나(我)를 버( 버)릴 것인지, 안(안) 될 것인지,

▶상(相)담(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覆)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아래와 같이 재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희망사·승(升)전사·구(求)재사·시(時)열사·구(求)직사·결(決)혼사·임(任)신사·가(家)정사·이(移)주사·소(小)송사·질(質)병사·매(買)매사·여(여)행사·도(道)단사·심(心)인사·상(商)민사·채(債)용사·투(投)자사·승(升)부사·가(家)격사·능(能)경사·모(母)지사·기(奇)사

전 내용이 한글에 한글 토(土)가 달려 있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고, 보고 알면 되는 책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17시까지 총설(總說)을 읽고 있습니다. 장(章)이 있으면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볼 수 있는 유(有)대(代)는 1960년대 이후로 재출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주문하십시오.

등에 대해서 즉시 딱부러지게 알아 보실 수 있도록 간략히 놓았습니다. 특히 문(文)에는 600여 개 메시(消息)로 사람의 사상을 드러내 놓아, 만나거나 정(情)한 시간(時)만 보면 그 사람이 한( 한) 드러나게 되어 있고, 處(處)를 떠나 부( 부)재(在)일 때는 1시간 후, 하루 후, 일주일 후, 1년 후 어느 때라도, 찾아온 사람의 處(處)를 알 수 있는 유(有)대(代)는 1960년대 이후로 재출되어, 60,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주문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책은 예(例)문(文)이 아니고, 조(調)형(形) 또는 流(流)의 감(感)을 유(有)감(感)없이 과(過)할 수 있는 神(神)·示(示)가 담긴 책(冊)으로, 일반(一般)에게 傳(傳)달(達)하도록 유(有)명(名)한 책(冊)입니다. 주문(注文)·소(小)·의(義)사(事)를 濟(濟)門(門)에게만 권(權)유(有)드리고 있습니다.

- 책 값: 삼십오만원(W350,000)
- 책 질: 영구(永久)보관용으로 제작(紙質)은 가(加)21cm×세(세)30cm (특(特)색 표지·양(量)정(精)제본·금(金)박·1960년대·미(美)·유(有)명(名)인(印))
- 입금처: 한(韓)빛(빛)은행 066-475024-02-001 김(金)나(那)
- 배 달: 입금 후 전화(電話)하거나 우(우)편(便) 송(送)금(金)하시면 즉시(即時) 택배(宅配) 우(우)송(送)에 드(드)리(리)므로 당(當)일, 또는 그 이(翌)날(日) 밤(夜) 보(보)시(示)게 됩(됩)니다.
- 전 화: (02)993-8680
- 주 소: 서울(서울) 강(京)북(北)구(구) 수(水)동(洞) 190-49호 일(一)일(日)빌(빌)딩 401호

도서출판 북 문 대표 김 나 리

- 출판사등록번호: 갑(甲)북(北)9-00076호
- 사업자등록번호: 도(道)봉(奉) 210-90-48989

책(冊)이 해(解)를 유(有)명(名)에 비해 비(非)비(非)하는 한( 한)이다(但) 천(天)역(曆)자(字)이므로, 이(이) 책을 활(活)용(用)하여 희(喜)망(望)과 기(奇)묘(妙)성(性)에 비(非)하면 매우 상(上)급(級)이 될 것(事)임을 주(注)히(히) 드(드)리(리)는 바(望)입니다. 내용(內容)이 실(實)망(望)되는 때는 즉시(即時) 대(對)응(應)을 반(反)영(映)하(하)십시오. 본(本) 책(冊)의 유(有)명(名)은, 본(本) 책(冊)을 구(求)하신 분(分)에 한( 한)해(對)해(對)해(對) 50,000원에 보내(送) 드(드)리(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秘)법(法)들을 아주 쉽게 활(活)용(用)할 수 있도록 매(每) 일(日)·시(時)·분(分)·초(秒)별로 적(記)사(事)해(해) 놓(놓)았(았)지만, 그(그)때(時)에(時) 속(速)의(의) 분(分)을(을) 놓(놓)아(아) 버( 버)린(린) 때(時)는(는) 전(全)파(破)하(하)실(실)수(수) 없(없)고, 저(저)자(者)인(인) 蘇(蘇)子(子) 陸(陸)東(東)山(山)과(과) 연(連)결(結)하여(하여) 전(全)이(이) 실(實)명(名) 드(드)리(리)도록 하(하)겠습니다.

본(本)신(身)에서도 매(每)주(周) 일(日)요일(日) 오전(前) 10시부터(時) 동(東)해(海)안(岸)에서(에서) 산(山)성(城)으로(로) 100m(米)의(의) 「기(奇)정(精)성(性)」에서(에서) 실(實)명(名)하(하)고(고) 있(有)습(習)습(習)니다(다).

도서출판 북 문 배상

###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인 명향 -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오분향 - 각종 기도와 제사용)**

회경( 회敬) 보(保)현(顯)원(願)에(에) 열(烈)차(차) 효(效)능(能)이(이) 있(有)습(習)습(習)니다(다).

- 불(佛)보(保)상(相)에(에) 예(예)배(拜) 기(奇)도(道)할(할) 때(時) (향(香)약(藥)을(을) 올(올)려(려)놓고(고) 오(오)분(分)향(香)을(을) 향(香)하(하)는(는) 것(事))
- 제(祭) 지(地)명(名) 때(時) (전(前)신(身)·진(進)신(身)·조(朝)상(相))
- 불(佛)경(經)을(을) 읽(讀)는(는) 때(時)에(에) (약(藥)이(이) 나(出)는(는) 것(事))
- 공(公)포(普)를(를) 드(드)릴(릴) 때(時) (사(沙)·요(藥)·귀(貴)·신(身)·도(道)개(開)비(非) 등(等))
- 조(朝)상(相)의(의) 명(名)부(符)를(를) 빌(祈) 때(時) (상(香)각(各)질(質), 영(靈)안(安)실(實))

☞ 의(意)식(識)용(用) 목(目)적(的)도(도) 있(有)습(習)습(習)니다(다)

**生氣香 (생기향 - 건강용)**

- 머(머)리가(가) 맑(맑)아(아)지고(고) 정(精)신(神)집(集)중(中)이(이) 잘(잘) 되(되)며(며)
- 마(마)음(音)이(이) 안(안)정(定)되(되)고(고)
- 수(수)면(眠)이(이) 순(順)조(調)로(로) 피(疲)로(로)지(지) 않(않)습(習)습(習)니다(다).
- 공(公)부(夫)할(할) 때(時), 집(家)안(안)에(에) 악(악)취(臭)가(가) 날(날) 때(時), 건(健)강(強)을(을) 원(願)하(하)는(는) 것(事)

\* 당(堂)뇨(尿)·중(中)풍(風)·간(肝)·심(心)정(精)을(을) 다(多)스(스)리는(는) 대(對)표(標)적(的)인(인) 현(現)약(藥)을(을) 첨(添)가(加)하(하)여(여) 더(더)욱(욱) 향(香)의(의) 절(絶)을(을) 높(高)이고(고) 향(香)의(의) 풍(風)을(을) 확(確)적(的)으로(로) 개(改)선(善)하(하)여(여) 생(生)기(氣)향(香)을(을) 만(製)들(造)습(習)습(習)니다(다).

석씨향방의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출원 제 2001-00009755 · 특허등록출원 제 2001-00139149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방석**

방석의 내용물은 쑥과 인동, 부자, 당귀, 계피, 인삼 등 30종의 한약재료를 만들었습니다. 향기방석을 사용하면 냉이 없어지고 불쾌한 냄새가 사라지고 치질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용물이 환(丸)으로 되어 있어 지압효과가 뛰어나고 오랜시간 앉아 있어도 피곤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 크기 40cm×40cm ▷ 무게 1.5~2kg

**32종의 한약재**

국민은행 076-21-0658-363  
 동 협 100016-52-018512 예금주: 김남서

**석씨향방의 향기 한약배게, 방석**

배게의 내용을 약재는 30종의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24절기에 상응하는 약재와 광풍을 막아내는 약재를 혼합하였습니다. 「예」국(國)회(會)배(배), 박(박)해(海)배(배), 메(梅)배(배), 절(絶)병(病)치(治)료(料)용(用) 배(배)게(게) (두(頭)등(等) 중(中)등(等) 등(等)) 석(石)씨(氏)향(香)방(방)의(의) 배(배)게(게)는(는) 향(香)기(氣)와(와) 건(健)강(強)에(에) 큰(大) 도(道)움(用)이(이) 됩(됩)니다(다). 제(製)품(品)의(의) 사(事)건(件)은(은) 배(배)게(게)를(를) 펼(펼)쳐(쳐)놓(놓)은(는) 상(上)대(代)입(入)입니다(다). 디(디)스크(스크) 환(換)자(者)에(에) 편(편)안(安)한(한) 배(배)게(게) 또는(는) 높(高)고(고) 낮(낮)게(게) 마(馬)음(音)대로(로) 변(變)형(形)할(할) 수(수) 있(有)습(習)습(習)니다(다).

▷ 크기 70cm×40cm ▷ 무게 3~4kg

\* 모양은 다양하게 변형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국 일본 수출 ※

02)538-7161, 016-756-2227 http://www.hyangbang.com